

광주서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무증상 90대 여성 확진 11일 만에 숨져 보건당국, 중증 환자 3명 치료 주력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환자가 첫 사망했다. 1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 환자로

분류된 4명 중 1명인 광주 112번 확진자(90대 여성·광주 북구)가 이날 숨졌다. 112번 확진자는 광주에서 지난 2월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 발생한 사망자다. 전국에서는 코로나19 292번째 사망자다. 이 여성은 한울요양원 관련

확진자로 광주 72번, 7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직후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사망 이틀 전부터 열이 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병원은 산소를 4배까지 올리는 등 '고유량 산소요법' 치료를 진행했지만 확진자가 90세 이상 고령인 점 등으로 쉽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1일 만에 숨을 거뒀다.

보건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고유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상태가 되면 '중증' 환자로 분류하고, 그 이상의 상황이 되면 '초중증'으로 분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세가 많은 신 분은 (건강 상태)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다"며 "치료를 하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71명이다. 이 중 1명이 사망했고 63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10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김민정 기자



독도는 지금도 미래도 영원한 우리 땅. 서해가 김동욱씨가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 백서에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표기한 것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독도사랑에술인협회장인 김 씨는 2005년부터 일본 정부의 독도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임을 일리고 있다.

이용섭 "코로나19 광주 첫 사망 애도...장례절차 지원"

94세 여성 치료 중 숨져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 시장은 16일 코로나19 정기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광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예를 갖춰 장례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례절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가족 등의 하에 선 화장, 후 장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2시1분쯤 전남대병원 국가 지정 병상에서 중증으로 치료 중이던 94세 여성 A씨(광주 112번 환자)가 숨졌다.

한울요양원 입소자인 A씨는 지난 5일 무증상 환자로 전남대병원에 이송됐다.

그동안 별다른 증상 없이 며칠

이 있었으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고유량 산소를 투입하던 중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첫 번째, 국내에서는 292번째 사망자다.

시는 임종이 임박해 유족에게 설명하고 장례물품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영락공원에서 화장하고 장례를 치른다. 장례비용 1000만원, 코로나19 방지비 3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이날 현재 광주 입원 확진자 110명 중 90세 이상 3명, 70~80대

환자는 21명이다.

이 중 3명은 중증으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으나 고령 어르신들이라서 걱정이 크다"며 "고령층에게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2만9000여명을 선제적으로 전수검사 하는 등 각별한 주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제주 호텔에 불지른 20대 남성...잠자던 수십명 대피

방화 경위 조사 중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20)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10층 객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객실 내 침대와 욕실을 태운 후 소방 출동 전 자체 진화됐다.

이 화재로 호텔 투숙객 5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화용의자로 지목된 A씨가 이날 오전 4시20분쯤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4일 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16일 퇴실할 예정이었다.

연기 발생 후 A씨가 객실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소파와 욕실을 방화지점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봉우 기자

수돗물 유출 신고 2건...배수지 3곳 조사 착수

경기 화성시가 수돗물에서 유출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유출 발견 신고가 접수된 곳은 화성 기산동 소재 아파트와 마도면 에 위치한 직업훈련교도소 등 2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맑음물사업소는 전날 해당 아파트 주방과 직업훈련교도소 화장실 수돗물에서 유출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현장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 이물질이 유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해당 아파트와 직업훈련교도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화성 석우배수지와 매송정수장·마도배수지 등 3곳에 인력을 투입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조사에 나선 상태이며,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주가 성폭행" 알바머고생 죽음으로 내몬 40대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위계 등 추행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델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강력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친구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점, A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B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에서 A씨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원인으로 보이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B양에게 행사한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 예고 30대...차량 화재로 숨진채 발견

제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51분쯤 제주시 오라2동 방선문 계곡 인근에서 차량 1대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신 4도 화상을 입은 A씨(31)는 차량 밖에 쓰러진 채 숨져 있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46분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음주운전 가수 환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환희(38·본명 황윤석)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용인시 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다.

1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의 아반떼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달리던 황씨의 벤츠와 접촉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A씨는 황씨가 음주상태인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1%로 파악됐다.

황씨의 소속사 에이치투미디어는 사고 직후,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